

2019-10-18 금 지공여행 18차 인천공항 오성산 전망대

오랫만에 다시 인천공항을 간다. 남성역에서 출발하여 고터에서 9호선 급행을 타고 달린다. 급행은 급하게 달려준다. 하여 빨리가고 사람도 많다. 여의도역에서 서고 다시 마곡나루에 선 뒤 김포공항역에서 선다. 참 빠르다. 공짜라서 더 좋다. 더이상 늪지않고 이상태에 머물렀으면 조오게에타!

급행이라고 모두 인천공항에 가는게 아니구나. 김포공항이 종점이라서 내렸다가 다시 타니 이번엔 검암행.

다시 내렸다가 인천공항행으로 갈아탄 시간이 2:30 벌써 한시간이 흘렀구나. 내 삶에서 한 시간이 빠져 나갔다.

낮술 마시고 냄새 풍기며 나혼자 행복해하는 모습이 약간 찔리지만 나아도 나아름 열심히 살았었다

오늘 목표는 인천공항 오성산 전망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힐링장소를 하나씩 가지라고 하던데...

난 오성산 전망대가 딱이다

7호선 9호선 용유레일까지 약2시간동안 달리며 바다도 보도 산도 보고 머얼리 떠나는 비행기도 여러대 보면서 몸도 마음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모님과 종호식구들과 여러번 왔던 용유도 해물칼국수 집이 부근에 있어 추억도 불러낼 수 있어 더 좋구나.

그러나 접근이 힘들구나. 용유역에서 내려 40분을 걸어야 도착가능한 오성산이라 왕복 6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겐 최적의 힐링포인트이구나.

사람도 적고

바다도 보이고

비행기도 많이 보이고...

더구나 여행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멀긴 멀구나.

실제로 여행을 한다면 숙소에 도착하여 곧

자야 될 듯. 졸립다.

공짜라 미안해서 서서 왔더니 낮술까지 영향을 미쳐 깜빡 졸았지만 다행히 1터미널에서 내려 용유행 자기부상 열차를 타고 밖을 구경하며 갔다. 좋다.

장기주차장역에서 내려다보니 주차된 승용차가 대단히 많구나.

그만큼 해외여행을 간거겠지.

용유역에서 걷기 시작

그러나 전망대가 안보인다

계속 걸어가니 마시안 해변이 나오고 지친다.

길을 잃었구나.

다행히 어머님과 같이 갔던 황해칼국수를 만나 반가웠고 용유역을 찾아 저기부상열차를 타고 1터미널로 와설랑

고터가는 지하철을 못찾아 헤맸다. 묻고 물어 갈아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역행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을 갈아탈 생각이다.

입에서 단내가 나다가 이젠 쓴내가 난다. 2시간 걸었더니 진이 빠졌다. 힘들다. 어서 가서 자고싶다.

내 집이 최고구나.

인천광역시 > 중구 > 운서동

☀ 8°C

